

2016-16

# 주간 통일정세

2016-17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4.24	北, 인민군 창건일 하루 앞두고 김정은에 충성 독려(연합뉴스) 北김정은, 양강도·황해남도 당대회 대표로 추대(연합뉴스)	
	4.25	“핵에는 핵” 주장했던 리수용 北 외무상 뉴욕 떠나(연합뉴스) 북한, 당대회 자금 위해 中회사에 北군로자 임금 先 요구(연합뉴스) 北, 인민군 창건일 맞아 전군에 김정은 향한 충성 독려(연합뉴스)	
	4.26	北김정은, 노동당 내각 인민내무군 당대회 대표 추대(연합뉴스) 김정은, 7차 당대회후 부패척결 나설 듯·<일 전문가>(연합뉴스) 김정은, 전쟁할 생각 없다··울컥해서 미사일 쏜 것(연합뉴스) 北리수용 외무상, 유엔 회의 참석 후 귀국(연합뉴스) 北, 인민군 창건일 ‘군사 이벤트’ 없이 차분히 넘겨(연합뉴스)	
	4.27	북한, 36년만의 노동당 대회 5월 6일 개최(연합뉴스) 北 노동당 대회 왜 36년 만에 개최되나··유일체제 특성(연합뉴스) 외신들 “김정은, 당대회로 지배력 강화··5차 핵실험 가능성”(연합뉴스) 北 “농업전선 승리로 당대회 정신 보위하자” 독려(연합뉴스)	
	4.28	北 실제 조연준 스트레스 못이겨 사표 냈다 반려돼(연합뉴스) 北 36년만의 당대회 앞둔 ‘70일 전투’·부작용 속출(연합뉴스) 北, 36년만의 당대회 맞아 김정은 우상화··주민불만 커져(연합뉴스) 北, 과거 당대회까지 ‘변경’··1차 개최일 10개월 앞당겨 보도(연합뉴스)	
	4.29	北, ‘반년 만에 완공’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준공식(연합뉴스) 北, 당대회 앞두고 김정은 중심 ‘단결’ 주문(연합뉴스)	
	4.30	교체설 나돌던 리시홍 주독일 북한대사 북으로 돌아가(자유아시아방송)	
	경제	4.24	대북제재 첫달, 중국의 석탄수입액 30% ↑··철광석 귀금속 급감(연합뉴스) 中매체, 중국내 북한식당 1년새 최소 6곳 문닫이(연합뉴스)
		4.26	北, SLBM 시험발사로 해외에서의 대북송금 차단 위기(연합뉴스) 돈줄 마르는 북한, 구조연계 항공기로도 외화벌이(연합뉴스)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 줄여 긴축경영(자유아시아방송)

	4.27	<p>北단천은행 베트남 부대표 사실상 추방·대북 개인제재 첫 이행(연합뉴스)</p> <p>앙골라 北 의사들 불법 낙태기술로 부수입 챙겨(자유아시아방송)</p> <p>대북제재 구명 승승·北선박 수시로 이란 드니들여(연합뉴스)</p>
	4.29	<p>방콕행 北고려항공 승객 제로·中 제재강화 영향 관측(연합뉴스)</p>
	4.26	<p>평양마리톤 참가 싱가포르 여성, 대북제재 위기감 못느껴(연합뉴스)</p>
	4.29	<p>北 당대회 앞두고 평양 사실상 '봉쇄'·결혼 장례식도 금지(연합뉴스)</p> <p>북한, 외국 공관 주재원 여권 입수 나서·추가 탈북 방지책안듯(연합뉴스)</p> <p>北 당대회 앞두고 국경 300세대 강제이주 지시(데일리NK)</p> <p>北 당대회 앞두고 단속 동원 70일전투 등 3가지 불만(연합뉴스)</p> <p>北 김일성 생일에 아이들에 준 과자 인기 없어(자유아시아방송)</p>
	4.30	<p>북한서 첫 은행털이 사건 발생(자유아시아방송)</p>
사회 문화	4.24	<p>北 미제 핵도발방동 계속하면 선제타격 가할 것(연합뉴스)</p> <p>美전력사령부 '북한 SLBM 발사 확인'·미국에 위협 못줘(연합뉴스)</p> <p>日방위상, 北탄도미사일 역량 강화 매우 우려할 일(연합뉴스)</p> <p>日언론, 北SLBM발사, 제재반발 내부결속·대화압박 위협용(연합뉴스)</p> <p>프랑스, EU에 SLBM 발사 북한 추가제재 요청(연합뉴스)</p> <p>北 "잠수함 미사일 시험발사 대성공" 주장·김정은 참관(연합뉴스)</p> <p>北, 최전방에 방사포 300여문 추가배치·서울 수도권 사정권(연합뉴스)</p>
	4.25	<p>오바마, 한미훈련 중단 인해·北 비핵화 진지한 태도 보여야(연합뉴스)</p> <p>이임 앞둔 한미연합사령관, 北핵 미사일 강화에 대비해야(연합뉴스)</p> <p>中환구시보, 北추기도발에 경고·중국도 살길 터지기 어렵대(연합뉴스)</p> <p>안보리, 북한 SLBM 실험은 결의 위반·언론성명서 강력규탄(연합뉴스)</p> <p>노벨상 수상자 3명 29일 방북·청룡, 채류비 일부 부담(미국의소리)</p> <p>북 SLBM 발사시험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연합뉴스)</p>
	4.26	<p>美국방부, 北 SLBM 발사 결과 아직 분석중·안보리 결의 위반(연합뉴스)</p> <p>美 전문가들, 北 5차 핵실험하면 추가 제재 불가피(연합뉴스)</p> <p>햄리 CSIS 소장, 김정은 끝 안 보이는 길 걸어·제재 효과적(연합뉴스)</p> <p>아인혼 "美 '핵무기 사용 옵션 갖고 있다'·北 위협 때문"(연합뉴스)</p> <p>北 매체, 미중러 핵군비 경쟁 치열·핵보유 정당화 속셈(연합뉴스)</p> <p>日, 북한에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항의(연합뉴스)</p> <p>유엔 대변인, 리수용 발언에 "안보리 결의 준수가 우선"(연합뉴스)</p> <p>38노스, 北SLBM 발사 나름대로 성공적·2020년께 실질적 위협(연합뉴스)</p> <p>영국 전문가 "北, SLBM로 2차 핵 보복공격 능력 추구"(연합뉴스)</p>

	<p>공중 폭발한 北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또 발사대기 태세(연합뉴스)</p> <p>北 1월 핵실험 후 현장지표 7cm 함몰·히로시마 원폭보다 약해(연합뉴스)</p> <p>美SIS "풍계리엔 경미한 움직임만"·5차핵실험 준비 끝난듯(연합뉴스)</p> <p>北, SLBM 발사는 정당한 자위권·핵에는 핵으로 맞설 것(연합뉴스)</p>
4.27	<p>美 국무부, 북한 핵·미사일 도발 계속됐 다른 옵션 검토(연합뉴스)</p> <p>백악관, 北정권 향해 압박 강화할 것·중국과 긴밀히 협력(연합뉴스)</p> <p>北노동신문 "美 적대정책 포기 않으면 핵 불세례 각오해야" 위협(연합뉴스)</p> <p>中, 새로운 '동북진흥계획' 지침서도 북·중 경협 됐다(연합뉴스)</p> <p>핵실험에 빨간 시진핑, 北당대회에 중랑급인사 안보낼듯(연합뉴스)</p> <p>中外교부, '北당대회 초청장 받았다' 질문에 '동문서답'(연합뉴스)</p>
4.28	<p>北, 美 제재조치는 침략적 대외정책 수단(연합뉴스)</p> <p>美 국무부, 北미사일 발사 규탄·유엔에 문제 제기(연합뉴스)</p> <p>시진핑 "중국, 한반도 혼란 용납 안해·대북제재 전면적 집행"(연합뉴스)</p> <p>이집트, 유엔제재 대상 포함된 북한인 3명 추방(자유아시아방송)</p> <p>반기문, 북핵문제 해결 위해 대화는 필수적이며 효과적(연합뉴스)</p> <p>인도네시아, 남북 관계 개선 위해 중재하겠다(연합뉴스)</p> <p>이집트, 유엔 제재대상 연루 북한인 추방 움직임(연합뉴스)</p>
4.29	<p>北 "미국, 판문점서 도발행위 감행말라" 억지(연합뉴스)</p> <p>미국, 북한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자동추적 시스템 시험중(연합뉴스)</p> <p>일본, 北미사일 '파괴조치 명령' 연장·노동당대회 주시(연합뉴스)</p> <p>일본 외무상,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용납 못해(연합뉴스)</p> <p>조선총련, 北 당대회에 10명 인위 대표단 파견(자유아시아방송)</p> <p>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논의(연합뉴스)</p> <p>뉴질랜드, 북한 여행 주의보 발령(연합뉴스)</p> <p>노벨상 수상자 3명 방북한듯·김일성대서 강연(연합뉴스)</p> <p>북한 SLBM발사때 옆에 만경봉호 있었다·데이터수집한듯(연합뉴스)</p> <p>北, 무수단미사일 2발 발사·추락·공중폭발로 모두 실패(연합뉴스)</p>
4.30	<p>유엔주재 중국대사, 북한의 한미훈련중단 핵포기 제안 고려해야(연합뉴스)</p> <p>안보리, 전회원국에 한달내 대북제재 구체적 조치 보고 요구(연합뉴스)</p> <p>미 ISIS, 북 영변 핵단지서 재처리준비 추정활동 이어져(연합뉴스)</p> <p>北 5차 핵실험 도발할까·감행한다면 다음 주 초 유력(연합뉴스)</p>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6. 4. 25.

##### ■ 北김정은, 양강도·황해남도 당대회 대표로 추대(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 달 초 열리는 노동당 제7차 대회의 양강도, 강원도, 황해남도 대표로 추대됨.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5일 “노동당 양강도, 강원도, 황해남도 대표회가 현지에서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를 당 7차 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보도함.

2016. 4. 26.

##### ■ 北김정은, 노동당 내각·인민내무군 당대회 대표 추대(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대회의 노동당 내각과 인민내무군, 철도성, 문화성 대표로 추대됨.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조선 노동당 내각, 조선인민내무군, 철도성, 문화성 대표회들이 현지에서 진행됐다”며 “대표회들에서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 데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보도함.

##### ■ 김정은, 7차 당대회후 부패척결 나설 듯...〈일 전문가〉(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부패척결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의 북한 정보 분석전문가가 전망함.
- 일본 내 북한정보분석의 일인자로 꼽히는 사카이 다카시(坂井隆) 전 일본公安조사청 조사 제2 부장은 26일 아사히(朝日)신문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작년부터 인민중시와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함. 이어 부패척결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위해서는 권위와 구심력 강화가 필요한 만큼 최근 대외적으로 긴장을 높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지 모른다고 밝힘.
- 이번 당 대회에서는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추대와 핵 개발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함.

- 사카이 전 부장은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려는 의욕이 강하며 35년 만에 당 대회를 여는 것도 그런 의욕의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그를) 내정을 무시하는 모험주의자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며 권력승계 준비기간이 짧아서 역지로 빠른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함.

#### ■ 김정은, 전쟁할 생각 없다..울컥해서 미사일 쏜 것(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들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전쟁을 할 생각은 없다. 울컥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26일 알려짐.
-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藤本建二)씨가 김 위원장과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함.
- 면담은 지난 12일 밤 평양 시내의 연회시설에서 식사를 겸해 3시간가량 이뤄짐.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측근인 최룡해도 자리를 함께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4. 25.

#### ■ “핵에는 핵” 주장했던 리수용 北 외무상 뉴욕 떠나(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을 정당화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던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24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을 떠남.
- 리 외무상은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에미리트 항공 204편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향함. 두바이 도착 이후 리 외무상의 행보와 관련해 북한 유엔대표부 직원들은 함구함.
- 이날 북한 대표부 직원들은 비행기 출발 시각보다 2시간 30분 전에 공항에 나와 리 외무상 일행의 출국 수속을 밟았음. 리 외무상은 입국 때와 마찬가지로 출국 때도 언론을 따돌림.

2016. 4. 26.

#### ■ 北리수용 외무상, 유엔 회의 참석 후 귀국(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 고위급 회의’와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한 뒤 26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리수용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개발 목표달성에 관한 고위급 토론회와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파리협정 서명식에 참가하고 26일 귀국했다”며 한 문장으로 그의 귀국 사실을 알림.

2016. 4. 28.

■ **北 실세 조연준 스트레스 못이겨 사표 냈다 반려돼(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세인 조연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한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의해 반려됐다는 주장이 제기됨.
-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2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정권 붕괴 후 탈북민들의 역할’ 주제의 북한자유주간 토론회에서 “(숙청 정국에 따라) 고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연준 같은 사람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사표도 내는 것을 김정은(제1위원장)이 반려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힘.
-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 부원장은 “(김정은의) 이런 최측근 호위 무사들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북한 최고위층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북한 체제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말함.
- 이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체제)에 대한 희망을 접고 장마당 경제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점점 더 눈을 뜨고 있다”고 주장함.

2016. 4. 30.

■ **교체설 나돌던 리시홍 주독일 북한대사 북으로 돌아가(자유아시아방송)**

- 교체설이 나돌던 리시홍 주독일 북한대사가 독일을 출발해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RFA에 정확한 귀국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리 대사가 이미 베를린을 떠났다”며 “북한이 곧 후임 대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힘.
- 후임 북한대사가 누구인지와 독일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다. 공식행사

2016. 4. 26.

■ **北, 인민군 창건일 ‘군사 이벤트’ 없이 차분히 넘겨(연합뉴스)**

- 북한이 인민군 창건 84주년 기념일(4월25일)을 특별한 대형 이벤트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렀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건군절에 즈음해 인민대표단들이 인민군 부대들을 방문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이 군인들에 전달됐다”고 밝힘.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군인들과 공연을 관람하고 체육 경기도 펼침. 조선인민군협주단은 기념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펼쳤다. 행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가 참석함.
- 북한은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벌이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였지만 특별한 ‘군사적 이벤트’는 선보이지 않음.

#### 2016. 4. 27.

##### ■ 북한, 36년만의 노동당 대회 5월 6일 개최(연합뉴스)

- 36년만 열리는 북한 노동당 당 대회가 다음 달 6일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임.
- 북한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27일 오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2016년 5월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집권 5년차를 맞아 열리는 올해 행사에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한편 경제 및 국방 분야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 ■ 北 노동당 대회 왜 36년 만에 개최되나…유일체제 특성(연합뉴스)

- 공산주의 국가에선 당 대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돼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거나 정책 노선을 제시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유일체제가 작동하는 북한에선 그렇지 않았음. 다음 달 6일 개최되는 노동당 대회는 36년 만에 개최됨.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상적이라면 1980년 6차 당 대회 이후 1990년 안팎으로 7차 당 대회가 열려야 했는데 사회주의권 붕괴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대규모로 아사자가 발생하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당 대회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함.
- 게다가 북한은 수령이 당보다 우위에 있는 유일체제이기 때문에 당 대회를 열어 권력의 재신임을 받을 필요도 없음. 노동당 규약에는 5년마다 당 대회를 열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집단 지도체제가 작동하는 중국에선 5년마다 당 대회가 열림.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6년 만에 당 대회 개최를 결정한 것은 자신의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서임. ‘김정은 강성대국’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했고, ‘김정은 조선’ 등 우상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

■ 외신들 “김정은, 당대회로 지배력 강화…5차 핵실험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내달 6일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연다는 공식 발표에 주요 외신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배 체제 강화 의도라고 분석하면서 5차 핵실험 가능성에도 주목함.
- AP통신은 27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는 북한이 수십 년 내 가장 큰 정치 대회의 날짜를 확정했다”면서 “이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로이터 통신도 서울발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이번 당 대회를 자신의 지도력을 공고히 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정식으로 채택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전함.
- AFP통신은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굳히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새로운 차원으로 밀어붙인 공적을 자랑하는 데에 이번 당 대회를 이용할 것”이라고 진단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4. 25.

■ 북한, 당대회 자금 위해 中회사에 北근로자 임금 先 요구(연합뉴스)

- 북한당국이 노동당 7차 대회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북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중국 현지의 회사에 임금 6개월분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함.
- 중국의 대북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200명가량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중국 단둥(丹東)의 모 수산물회사가 북한 측의 강력한 요구에 6개월분의 월급을 최근 송금했다”면서 “5월 초 개최될 노동당 대회 때 쓸 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소식통은 “중국 측이 지급하는 월급 500달러 중 대부분은 북한에 송금되고 150달러를 남겼다가 북한 측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지불하곤 했는데, 최근 들어 이마저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차라리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북한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설명함.

2016. 4. 28.

■ 北 36년만의 당대회 앞둔 ‘70일 전투’…부작용 속출(연합뉴스)

- ‘70일 전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금 강요 등의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음.

- 당 대회 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성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옴. 북한 당국은 고액의 성금을 내면 성금증서를 별도로 발급해 주는 한편 현지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인들도 예외 없이 성금을 요구했다고 함. 중국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해 귀순한 것은 70일 전투의 대표적인 역효과 사례로 지목됨.
- 아울러 70일 전투를 치르면서 주말과 휴일도 보장하지 않아 지방은 물론 특권층으로 분류되는 평양 주민 사이에서도 노력동원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게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임.
- 또 성과를 내려고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다 가마포수산사업소 소속 선원 8명이 사망하는 불상사도 발생함.
-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제2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한국전쟁 때 등장했던 구호인 '군자리(君子里)정신'까지 거론하면서 주민들을 계속 다그침.

#### 2016. 4. 29.

##### ■ 北, '반년 만에 완공'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준공식(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 달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6개월 만에 완공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준공식을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통신은 “발전소는 조선 청년들이 당 제7차 대회를 맞으며 어머니당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이라며 “(발전소 완공으로) 백두산 지구를 혁명의 성지로 더 훌륭히 꾸리고 양강도 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함.
- 준공식에는 최룡해·오수용 노동당 비서, 리상원 양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함.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2016. 4. 24.

##### ■ 北, 인민군 창건일 하루 앞두고 김정은에 충성 독려(연합뉴스)

- 북한은 인민군 창건 84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선군'을 강조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한 충성을 독려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선군혁명의 앞길에 빛나는 영원한 4·25'라는 글에서 “태양민족의 국력을 억척으로 다져주시는 불세출의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은 동지”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여 우리의 4월25일은 영원하다”고 찬양함.
- 신문은 '건군절이 전하는 뜻 잇을 이야기', '백두령장을 높이 모시여 위력 떨치는

필승불패의 혁명강군' 등의 글에서도 “우리 인민군대가 위력한 공격수단과 철벽의 방어수단을 다 갖춘 필승불패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된 것은 대원수님들과 김정은 원수님의 탁월한 선군혁명영도의 결과”라고 주장함.

-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보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조선 인민은 자기의 혁명군대를 가지게 되었다”며 “80여년 건군사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조선 인민군은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영웅적 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김정은혁명강군,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을 높이 떨치고 있다”고 밝힘.

#### 2016. 4. 25.

##### ■ 北, 인민군 창건일 맞아 전군에 김정은 향한 충성 독려(연합뉴스)

- 북한은 25일 인민군 창건 84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한 전군의 충성을 독려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면 사설에서 “전군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령군체계를 더욱 확립해야 한다”며 “김정은 동지의 영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선이며 승리의 결정적 담보”라고 밝힘.
- 대외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인민군은 것처럼 어렵던 고난의 행군 때에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맨 앞장서서 결사옹위하였다”며 “세대가 바뀌었지만 인민군대는 오늘도 김정은제일결사대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고 있다”고 밝힘.
- 조선중앙방송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전부터 기념일을 맞아 김 제1위원장과 인민군을 찬양하는 각계 주민 반응을 보도하고 있음.

#### 2016. 4. 27.

##### ■ 北 “농업전선 승리로 당대회 정신 보위하자” 독려(연합뉴스)

- 북한은 노동당 제7차 대회를 9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낼 것을 독려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사설에서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충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올려 당 제7차 대회 정신을 보위하고 우리 혁명의 10년, 20년, 30년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야 한다”고 밝힘.
- 이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라디오) 등 북한 주요 매체들은 다음달 6일 평양에서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한다고 일제히 보도함.

2016. 4. 28.

■ **北, 36년만의 당대회 맞아 김정은 우상화…주민불만 커져(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 달 6일부터 개최하는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우상화에 몰두하는 것으로 28일 전해짐.
-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김정은 우상화를 지속 추진하되 주요 계기를 집중적으로 활용해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며 “36년 만에 개최되는 7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 수준까지 격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 북한은 7차 당 대회 개최를 계기로 김정은 우상화를 더욱 강화해 체제 결속을 다질 것으로 보임.
- 통일부 당국자는 “현실과 괴리된 김정은 우상화 전략은 당 대회 성과 도출을 위한 70일 전투 등에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주민들과 청년층의 불만을 증폭시켜 사상 이완 및 체제 불안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함.

■ **北, 과거 당대회까지 ‘변경’…1차 개최일 10개월 앞당겨 보도(연합뉴스)**

- 다음 달 6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관영매체가 제1차 당대회 개최 시기를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10개월가량 앞당겨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북한 전문가들은 김일성 주석 주도의 대회를 첫 당대회로 앞세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代)에 이르는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함.

2016. 4. 29.

■ **北, 당대회 앞두고 김정은 중심 ‘단결’ 주문(연합뉴스)**

- 북한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중심으로 단결된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우리 당과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당 제7차 대회를 계기로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의 위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해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 “전당이 원수님의 당건설업적을 틀어쥐고 나갈 때 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 되는 강력적 과업들이 빛나게 수행되고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한 혁명의 전진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함.

## 2.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4. 24.

#### ■ 대북제재 첫달, 중국의 석탄수입액 30% ↑...철광석·귀금속 급감(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시작된 지난 3월 북중 간 석탄거래가 30% 이상 증가한 반면 철광석·항공유 등의 거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24일 연합뉴스가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을 통해 얻은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교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3월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2억 2천900만 달러로 작년 3월 대비 13% 증가함. 대북 수출액도 2억 3천600만 달러로 15.6% 상승함.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주로 수입한 품목은 석탄, 의류, 철광석으로 나타남.
- “이번 1분기 북중 교역 통계는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 “이번 북중 교역은 제재 이행 전 통계”라며 북중 무역이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대북제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 매체, 중국내 북한식당 1년새 최소 6곳 문닫아(연합뉴스)

-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들 가운데 최소 6곳이 지난 1년 사이에 폐업했다고 중국의 온라인 매체가 24일 보도함.
- 포털사이트 텡쉰(騰訊·텐센트) 망은 중국 내 북한 식당 38곳을 자체 조사한 결과 베이징(北京)의 평양풍정(平壤風情)·삼송각(三松閣), Ningbo(寧波)의 류경(柳京)식당 등 총 6곳이 1년 사이에 문을 닫았다고 보도함. 텡쉰망이 조사한 38곳은 실제 중국 내 북한식당 전체 가운데 일부분으로 추정됨.
- 한국 정부가 파악 중인 북한의 해외식당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 12개국 소재 130여

곳으로, 이 가운데 100여 곳이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16. 4. 26.

### ■ 北, SLBM 시험발사로 해외에서의 대북송금 차단 위기(연합뉴스)

-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으로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돼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ABC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함.
- ABC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는 해외에서의 대북 송금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추가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봄.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애런 클라인 연구원은 ABC에 “여전히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미국 외의 다른 주체들이 얼마나 더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함.

### ■ 돈줄 마르는 북한, 구소련제 항공기로도 외화벌이(연합뉴스)

- 북한 고려항공이 운용하는 오래된 구소련제 여객기들이 전 세계 ‘항공기 마니아’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미국 CNN이 26일(현지시간) 보도함.
- 북한관광 전문 여행사인 ‘주체여행사’는 이 점에 착안해 내달 6일부터 13일까지 벨라루스와 북한에서 고려항공 소유의 구소련제 항공기와 헬기를 타보는 관광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힘.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북한의 추가도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75명의 항공기 마니아들이 참가를 신청했다고 여행사 측은 전함. 영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 회사는 북한의 관영 국제여행사인 ‘평양고려국제관광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여행대금 상당 부분은 북한 당국에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 ■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 줄여 건축경영(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영업난에 시달리는 중국 내 북한식당들이 종업원을 대폭 줄이는 등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 중국 단둥(丹東)의 대북 소식통은 RFA와 통화에서 “단둥의 북한식당 중 일부가 종업원을 줄이는 등 영업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면서 “북한식당이 문을 닫지 않고 건축경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북한관 구조조정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힘.
- 소식통은 “지금까지 북한식당이 문을 닫고 철수하는 경우는 종종 보았지만, 축소경영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설명함.

2016. 4. 27.

■ **北단천은행 베트남 부대표 사실상 추방...대북 개인제재 첫 이행(연합뉴스)**

-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베트남 주재 북한 외교관이 사실상 추방된 것으로 알려짐. 베트남이 유엔의 대북 개인 제재를 처음으로 이행한 것임.
- 27일 현지 정가에 따르면 북한 단천상업은행의 최성일 베트남 부대표가 지난 23일 항공편으로 베트남을 출국, 북한으로 돌아감.
- 최 부대표는 유엔 안보리가 3월 초 결의한 대북 제재 대상자 16명 가운데 1명이다. 앞서 미국도 작년 12월 그를 자체 제재 대상에 포함함.

■ **앙골라 北 의사들 불법 낙태시술로 부수입 챙겨(자유아시아방송)**

- 앙골라에 파견된 북한 의사들이 불법낙태 시술로 부수입을 올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현지 소식통은 RFA에 “앙골라에 파견된 북한 의사의 상당수가 쉬는 날이나 퇴근 후에 현지인들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해주고 적지 않은 돈을 번다”며 “그 이유는 의사들이 번 돈의 대부분이 북한 당국에 상납돼 본인이 챙길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함.
- 소식통은 “낙태 시술은 (북한) 의사가 거주하는 집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 일부 산모는 목숨을 잃는가 하면 당국에 적발된 의사는 벌금을 물기도 한다”고 설명함.

■ **대북제재 구멍 송송...北선박 수시로 이란 드나들어(연합뉴스)**

- 국제사회가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對北) 제재를 하고 있지만 제재 대상이 아닌 상선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옴.
- 미국의 외교 분야 전문 칼럼니스트 클라우디아 로제트는 26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대북제재의 실패'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구멍이 많은 체에 비유하며 한계점을 지적함.
- 로제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목록에 북한 상선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꼬집었으며, 또 제재를 회피하려고 제3국 편의치적(便宜置籍) 등록을 한 북한 배를 제외해도 인공기를 단 배가 100척 가량 된다고 설명함.

2016. 4. 29.

■ **방콕행 北고려항공 승객 제로...中 제재강화 영향 관측(연합뉴스)**

- 북한 고려항공의 방콕노선 여객기가 지난 27일 중국에서 단 한 명의 승객도 태우지 못한 채 운항한 것으로 확인됨

- 일각에서는 고려항공의 27일 중국(선양)-태국(방콕) 노선 운항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관측과 이런 현상이 유엔 안보리 결의(2270호)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중국 측의 의지가 우회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됨.
- 29일 태국 항공·관광업계의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선양을 거쳐 지난 27일 새벽 방콕에 도착한 평양발 고려항공 JS253편에는 단 한 명의 승객도 탑승하지 않았음.

### 3.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4. 29.

##### ■ 北, 당대회 앞두고 평양 사실상 '봉쇄'...결혼·장례식도 금지(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오는 5월 6일부터 시작되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1주일 앞두고 평양에 대한 출입을 사실상 봉쇄 수준으로 통제하고 장례식과 결혼식 등 관혼상제 마저 금지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한 대북 소식통은 29일 “최근 관혼상제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중앙으로부터 하달 됐으며, 인민보안부2부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며 “결혼식이나 회갑 잔치, 장례식이 있는 주민들은 ‘큰일을 미뤄야 하니 귀찮아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등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전함.
-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당 대회를 앞두고 주민의 탈북 또는 생계활동을 위한 불법행위,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 ■ 북한, 외국 공관·주재원 여권 압수 나서...추가 탈북 방지책인듯(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집단 탈북한 이후 외국 공관원과 주재원의 여권 압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은 현지 공관원과 주재원의 여권을 보위부 직원이 압수해 일괄 보관하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이 이처럼 공관원과 주재원의 신분증 관리에 나선 것은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이후 추가 탈북을 막고 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함.
- 한 외교소식통은 “종전에도 북한의 외국 주재원들은 여권을 보위부 관계자에게 보관하게 하거나 일정 범위를 넘어 여행할 때 보위부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시스템

이 있었다”면서 “집단 탈출 사건 이후 보안이 강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 **北, 당대회 앞두고 국경 300세대 강제이주 지시(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양강도 혜산시 주민 300여 세대에 강제이주를 지시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함.
- 양강도 소식통은 2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위에서 국경지역을 재정비한다는 목적으로 혜강동(혜산시의 북쪽 압록강 연안에 위치한 지명)에 있는 300여 세대 살림집 철거를 지시했다”면서 “다음 초 70일 전투가 끝나면 바로 철거작업을 시작한다는 해서 주민들은 당황해 하는 분위기”라고 밝힘.
- 이번 조치는 2014년 압록강 연안에 위치한 혜산시 성후동과 강구동 지역 일부 살림집 철거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며, 국경지역 주민들을 순차적으로 강제 이주시켜 탈북루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2016. 4. 29.

■ **北 당대회 앞두고 단속·동원·70일전투 등 3가지 불만(연합뉴스)**

-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 주민들이 단속 강화와 각종 동원, ‘70일 전투’ 등 3가지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29일 보도함.
-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에서 주민들에 대한 단속, 통제가 현격히 강화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정치학습과 봉사노동에 동원되어 매일매일 들볶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RFA는 전함.
- 그러면서 “무직자를 없애려고 출근을 강요하는 것 외에 특별한 성과는 없다”면서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에 대해 숙박검열을 해 붙잡는데, 증명서가 없으면 노동단련대에 보낸다. 뇌물을 바쳐야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함.

## 라. 사회 동향

2016. 4. 26.

## ■ 평양마라톤 참가 싱가포르 여성, 대북제재 위기감 못느껴(연합뉴스)

- “대북 제재에 따른 불안감이나 위기감 같은 건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벚꽃과 개나리가 만개한 평양 거리는 평화로웠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았다”
-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지난 10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던 싱가포르 여성 옹 완(39)씨는 26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처음 방문한 평양에 대한 느낌을 이같이 전함.
- 옹씨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마라톤대회가 열렸지만,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개된 평양 시내에서는 위기감이나 불안감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고 상황을 전함.

2016. 4. 29.

## ■ 北 김일성 생일에 아이들에 준 과자 인기 없어(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김일성 생일(태양절, 4월15일) 기념 선물로 아이들에게 제공한 당과류가 장마당에 유출됐으나 질이 나빠 잘 팔리지 않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함.
- 함경북도 한 소식통은 지난 5일 RFA에 “아이들에게 공급된 선물 봉투가 장마당에서 밀거래되고 있다”며 “질이 낮아 중국산 당과류보다 훨씬 낮은(싼) 값에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말함.
- 함경북도 다른 소식통은 26일 RFA에 “당과류가 질도 낮고 인기도 없지만 이를 장마당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사법기관이 단속에 나섰다”며 “얼마 전 수성천식료공장에서 당과류 선물을 무더기로 팔아넘기다 사법기관에 적발됐다”고 말함.

2016. 4. 30.

## ■ 북한서 첫 은행털이 사건 발생(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처음으로 은행이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RFA에 “지난 4일 청진시 신암구역에 위치한 조선중앙은행 지점이 털렸다”며 “공화국이 생긴 후 처음 있는 일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함경북도 도립극장 인근에 있는 신암지점에는 밤새 경비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사건 당시에는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은행털이범들은 출입문을 부수고 은행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져갔다”고 말함.

#### 4.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6. 4. 24.

###### ■ 北, 미제 핵도발망동 계속하면 선제타격 가할 것(연합뉴스)

- 북한은 인민군 창건 84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국제사회에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한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함.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8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녹화 방송함.
- 리명수 인민군 총참모장은 보고에서 “정밀화·소형화된 각종 핵무기들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수중탄도탄을 비롯해 국가 방위를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자위적 전쟁억제력은 조국의 안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확고히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한국과 미국 군의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만약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노리는 핵도발망동을 계속 부린다면 백두산 혁명강군은 그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이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도 없이 하늘과 땅, 해상과 수중에서 가장 처절한 징벌의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함.

###### ■ 美전략사령부 ‘북한 SLBM 발사’ 확인…미국에 위협 못줘(연합뉴스)

- 미국 전략사령부는 한국 시간으로 북한이 23일 오후 6시 29분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사실을 탐지하고 이를 추적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밝힘.
- 북미항공우주사령부는 발사된 미사일이 “북미에 위협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함.
- 전략사령부는 이날 설명에서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 경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안보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2016. 4. 25.

###### ■ 오바마, 한미훈련 중단 안해…北 비핵화 진지한 태도 보여야(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한미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제안을 일축함.

-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하노버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의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할 용의가 있다면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식을 택했어야 했다고 덧붙임.
-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력을 구축해왔다. 그렇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중국을 향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 ■ 이임 앞둔 한미연합사령관, 北 핵·미사일 강화에 대비해야(연합뉴스)

- 이임을 앞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군사령관(육군 대장)은 25일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힘.
-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서울 합동참모본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환송 의장행사에서 “최근 며칠만 보더라도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경고함.
- 이어 “이런 강력한 위협에 맞서 우리는 한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며 “매순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비태세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2016. 4. 26.

#### ■ 美 국방부, 北 SLBM 발사 결과 아직 분석중...안보리 결의 위반(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KN-11·북한명 '북극성-1') 발사 시험과 관련해 “아직 평가(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
-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한반도 안정을 촉진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도발적 시험을 다시 한 번 했다는 것 이외에는 현 시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규정할지 말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힘.
- 쿡 대변인은 “정확히 어떤 일(시험)이 있었던 것인지에 관계없이 이것은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능력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미국과 역내 동맹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함.

### ■ 美 전문가들, 北 5차 핵실험하면 추가 제재 불가피(연합뉴스)

-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등을 활용한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옴.
-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통화에서 “미국의 독자 제재는 강도 높은 조항을 담고 있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해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이 26일 보도함.
-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 수단은 여전히 많다”면서 “의회를 통해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위원 출신인 윌리엄 뉴콤도 “원자재 수출 분야와 중국을 통한 사치품 유입 완전 차단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고려항공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지적함.

### ■ 햄리 CSIS 소장, 김정은 끝 안 보이는 길 걸어…제재 효과적(연합뉴스)

-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분야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26일 “북한이 계속 도발행위를 하면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하고,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힘.
- 햄리 소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관계 포럼인 ‘아산플래넘 2016’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제재는) 이제야 시작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 제재를 더 강력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함.
- 햄리 소장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해 “김정은은 결국 끝이 안 보이는 길을 걷고 있다”면서 “핵무기가 궁극적으로 안정과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다”고 지적함.

### ■ 아인혼 “美, ‘핵무기 사용 옵션’ 갖고 있다…北 위협 때문”(연합뉴스)

-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26일 북핵 위기 등과 관련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있고, (핵무기 사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밝힘.
- 아인혼 전 특보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관계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어떤 대대적, 재래식 군사적 공격을 받거나 미국의 동맹이 공격을 받을 경우 그런 옵션(핵무기 사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 하나의 억제책으로서 그런 옵션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이어 그는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그것은 북한의 잠재적 위협이 한국에 대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아인혼 전 특보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 상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도 중국이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길 희망한다”면서 여전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함.

#### ■ 北 매체, 미중러 핵군비 경쟁 치열…핵보유 정당화 속셈(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열강들이 붙어오는 치열한 핵군비 경쟁시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세계적 범위에서 전략적 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열강들의 핵군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함.
- 이 논평은 미국 언론과 군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핵탄두를 보다 소형화하면서 최첨단 초음속 운반수단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함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하는 대국들 사이에 핵무력 불균형이 조성되어 새로운 냉전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언급함.
- 논평은 “미국의 핵감축 타령이 자기의 전략적 우세를 보장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대국들의 새로운 핵군비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고 강조함.

2016. 4. 27.

#### ■ 美 국무부, 북한 핵·미사일 도발 계속면 다른 옵션 검토(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다른 옵션’(other options)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마크 토너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6일(이하 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방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이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함. 토너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이 지난주 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을 한 직후 미국이 뉴욕을 방문 중이던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여행을 제한한 조치를 거론하면서 다른 옵션을 언급함.
- 백악관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새롭게 평가할만한 것이 없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 백악관, 北정권 향해 압박 강화할 것…중국과 긴밀히 협력(연합뉴스)

-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 나오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새롭게 평가할만한 것이 없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중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함.
  -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하기 위해 택해야 할 경로는 한반도 비핵화에 충실하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 北노동신문 “美, 적대정책 포기 않으면 핵 불세레 각오해야” 위협(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관영 매체가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핵불세레’를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 논평에서 “우리의 인내성 있는 평화적 발기들을 모두 날려 보낸 미국에 최후의 선택만 남아있다”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완전 종식이나 아니면 핵불세레를 각오하느냐 하는 전략적 선택뿐”이라고 밝힘.
- 신문은 “미국이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에게 덤벼든다면 차례질(돌아갈) 것은 정의의 핵불벼락에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재가루가 되는 파국적인 재난 뿐”이라고도 언급함.

2016. 4. 28.

#### ■ 北, 美 제재조치는 침략적 대외정책 수단(연합뉴스)

- 북한은 28일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촉발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주장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미 재무성(재무부)을 비롯한 행정부의 인물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압력 책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그 무슨 제재 교리라는 것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대변인은 “미국이 제창하는 제재 교리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다른 나라들과 인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비렬한(비열한) 모략수법들을 묶어 놓은 것”이라면서 “강권과 전횡의 본산인 미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악의 교리”라고 비난함.

#### ■ 美국무부, 北미사일 발사 규탄…유엔에 문제 제기(연합뉴스)

-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를 봐서 알고 있고, 현재 역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상황을 관찰 및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이어 “북한의 도발 행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할 뿐”이라면서 “북한 정권에 응분의 책임을 물리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흔들림이 없도록 유엔에 우리의 우려(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함.

- 애덤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역내 동맹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 어떤 공격이나 도발로부터도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만반의 태세가 돼 있다”면서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도발 행위를 삼가고, 대신 국제사회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힘.

2016. 4. 29.

#### ■ 北 “미군, 판문점서 도발행위 감행말라” 억지(연합뉴스)

- 북한은 29일 미군이 판문점에서 도발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함.
-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최근 판문점 구역에서 우리측을 자극하는 미제침략군측의 불순한 도발행위가 극도로 우심(더욱 심함)해지고 있다”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망중(불망나니)짓을 저지른다면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개죽음만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FE) 연습이 이날 끝난 가운데 한미 간 공조 체제에 대한 트집잡기로 풀이됨.

#### ■ 미국, 북한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자동추적 시스템 시험중(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를 24시간 감시해 공격 전에 충분히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자동추적 컴퓨터 시스템을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 원은 28일(현지시간) 국방부 고위 소식통의 말을 빌려 국립지리정보국(NGA) 등 미 정보기관이 첩보위성, 유인 정찰기, 무인기(드론) 등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 화상 가운데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장착 차량(TEL) 등 이동식 표적을 컴퓨터로 자동 추적해 발사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비밀리에 시험하고 있다고 보도함.
- 특히 북한이 같은 날 TEL에서 사거리 3천~4천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 발사를 두 차례나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주목 할 만하다고 소식통은 평가함.

## 나. 북·중 관계

2016. 4. 25.

■ **中환구시보, 北추가도발에 경고…중국도 살길 터주기 어렵다(연합뉴스)**

- 중국 관영신문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5일 “유엔 안보리가 더욱 엄격한 제재를 논의하게 되면 중국도 (북한에) 살 길을 터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평양은 이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함.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되는 안보리의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중국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뜻임.
- 이 신문은 북한의 추가도발 국면에서 '중국역할론'이 또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시각을 드러냄. 환구시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을 향해 대북압력을 가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 중북이 적대관계가 되는 것은 그들(한미)이 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비롯된 북핵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2016. 4. 27.

■ **中, 새로운 '동북진흥계획' 지침서도 북·중 경협 뺐다(연합뉴스)**

- 중국 중앙정부가 203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동북진흥계획 지침서에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배제한 것으로 27일 확인됨.
-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전날 공동으로 발표한 '동북지방 등 옛 공업기지 전면진흥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 전문을 분석한 결과 동북 3성 진흥 계획상의 경협 대상 국가로 한국, 러시아, 몽골, 일본, 유럽, 미국 등은 거론됐지만, 북한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소식통들은 “2030년까지 적용될 동북진흥 장기 전략의 지침상에서 북한과의 경협이 적시되지 않은 것에는 분명히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핵개발로 걸림돌이 되는 북한을 '일대일로'와 같은 글로벌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함.

■ **핵실험에 뿔난 시진핑, 北당대회에 중량급인사 안보낼듯(연합뉴스)**

- 북한이 내달 6일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중국 대표단의 방중 동향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음.
- 27일 북중 관계에 밝은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측된 동향만 놓고 보면 중국이 북한에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량급 인사가 포함된 대표단을 파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도발, 그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대응

등으로 양측의 정치적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얼어붙어 있음.

■ **중외교부, '北당대회 초청장 받았나' 질문에 '동문서답'(연합뉴스)**

- 북한이 27일 노동당 대회 날짜를 공식 발표했지만, 중국은 대표단 파견 여부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입장을 유지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내달 5일 당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은 초청장을 받았느냐”고 묻자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는 조선의 당과 인민 자신들의 국내정치 생활에서 하나의 큰 일”이라고 대답함.
- 북한 측의 초청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음.

2016. 4. 28.

■ **시진핑 “중국, 한반도 혼란 용납 안해…대북제재 전면적 집행”(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은 반도(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 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또 ‘아시아 안보틀’ 구축, ‘남중국해 주권 수호’를 강조하며 대중 포위 차원에서 추진되는 미국의 동맹 강화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도 드러냄. 시 주석은 28일 오전 베이징(北京) дя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 회의 축사에서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밝힘.
- 또 올해 초부터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상황 관리와 대화·협상 추진을 위해 '거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함.

2016. 4. 30.

■ **유엔주재 중국대사, 북한의 한미훈련중단-핵포기 제안 고려해야(연합뉴스)**

-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제안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밝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4월 의장인 류제이 대사는 29일(현지시간) 의장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제안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류 대사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6자 회담이 대화를 위한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덧붙임.

## 다. 북·일 관계

2016. 4. 24.

### ■ 日방위상, 北탄도미사일 역량 강화 매우 우려할 일(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23일)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역량 강화로 연결된다면 “매우 우려할 일”이라고 밝힘.
- 교도통신에 의하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도쿄 도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우리나라의 영역, 주변 해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능력의 증강으로 이어진다면 매우 우려할 일”이라고 말함.
- 나카타니는 이어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수집, 분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임.

### ■ 日언론, 北SLBM발사, 제재반발 내부결속…대화압박 위협용(연합뉴스)

-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23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이 내부결속을 다지거나 제재에 대한 반발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함.
-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번 발사가 “다음 달 노동당 당 대회에 앞서 체제의 결속을 노림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하지 않고 미국에 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평가함.
- 이 신문은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시도하는 것을 거론하며 5번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함.

2016. 4. 26.

### ■ 日, 북한에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항의(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베이징(北京)의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항의함.
- 교도통신에 의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에 의한 도발행위는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함.
-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할 징후를 보이는데 대해 “강한 관심을 가지고 정보수집 및 분석을 하고 있다”며 “각국과 협력해 모든 사태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임.

2016. 4. 29.

■ **일본, 北미사일 '파괴조치 명령' 연장...노동당대회 주시(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이 내달 6일 노동당대회 전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말까지로 정한 북한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의 기한을 연장했다고 일본 언론이 29일 보도함.
-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당 대회를 앞두고 추가 도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미사일 발사 등에 만전의 대비 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긴장감을 갖고 정보 수집과 경계·감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임.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패트리엇(PAC-3)를 도쿄 방위성 청사 부지 등에 계속 배치하게 됨.

■ **일본 외무상,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용납 못해(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잇달아 발사한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 교도통신에 의하면, 기시다 외무상은 29일 중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 한국과 협력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자체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 기시다 외무상은 이어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감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에 항의할 뜻도 밝힘.

■ **조선총련, 北 당대회에 10명 안팎 대표단 파견(자유아시아방송)**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에 10명 내외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RFA에 “조선총련은 일본 정부의 방북시 재입국 금지 대상인 중앙본부의 간부 대신 지부 간부들로 이번 당 대회에 참가할 대표단을 꾸리기로 했다”면서 “이번 주 중에 일본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 소식통은 “허중만 의장과 부의장, 국장 등 중앙본부 간부들이 대거 재입국 금지 대상이어서 조선총련이 이번 당 대회에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기 어렵다”며 “오사카 지부 부영욱 위원장이 대표단 단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함.

## 라. 북·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4. 24.

## ■ 프랑스, EU에 SLBM 발사 북한 추가제재 요청(연합뉴스)

- 프랑스가 북한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유럽연합(EU)에 23일(현지시간) 요청함.
- 이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고 한국 정부가 밝힌 뒤에 나온 반응임.
-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확고하고 단합된 대응을 보여줄 것을 국제 사회에 촉구한다”고 밝힘. “특히 프랑스는 EU에 추가제재를 일반적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유엔 결의를 새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임.

2016. 4. 25.

## ■ 안보리, 북한 SLBM 실험은 결의 위반...언론성명서 강력규탄(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함. 이는 북한이 23일 오후 동해에서 SLBM을 발사한 것과 관련된 안보리의 공식 대응임.
- 안보리는 별도의 회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메일로 회람된 언론성명에 15개 이사국이 전부 동의함에 따라 채택함. 이날 성명은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짐.
- 유엔의 한 외교 소식통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안보리 이사국이 움직여 신속하게 언론성명이 채택됐다”면서 “과거에는 대응하지 않았던 수준의 도발에도 안보리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함.

## ■ 노벨상 수상자 3명 29일 방북...청룡, 체류비 일부 부담(미국의소리)

- 한국 정부의 우려 전달에도 노벨상 수상자 3명이 이달 말 방북해 김일성종합대학 등에서 강연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함.
- 노벨상 수상자의 방북행사를 추진 중인 우베 모라베츠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오는 29일 노벨상 수상자 3명을 비롯해 리히텐슈타인 공화국의

- 알프레드 왕자, 영국 BBC 방송 취재진이 자신과 함께 방북 길에 오른다고 밝힘.
- 모리베츠 이사장은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정치적 행동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평양에 내린 뒤 이번 행사가 어떤 식으로든 악용된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행사를 계속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임.

#### 2016. 4. 26.

##### ■ 유엔 대변인, 리수용 발언에 “안보리 결의 준수가 우선”(연합뉴스)

- 유엔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요지의 리수용 북한 외무상 발언에 대해 25일(현지시간)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힘.
-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오 브리핑에서 ‘리 외무상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함. 두자릭 대변인은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은 게 처음은 아닌 것 같다”면서 “북한으로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함.
-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함.

#### 2016. 4. 28.

##### ■ 이집트, 유엔제재 대상 포함된 북한인 3명 추방(자유아시아방송)

- 이집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인 3명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현지 소식통은 RFA에 “(이번에) 추방한 북한 요원 세명은 몇 년 전에 신분을 감추고 이집트로 몰래 들어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에 근무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무기 판매 활동을 해 왔다”고 밝힘.
- 소식통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추방된 북한인은 KOMID 요원 김성철과 손정혁, 보위부원 리원호 등임. 소식통은 “이들은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의 비호를 받으며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을 해왔다”며 “이 때문에 박 대사도 지난 3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함.

##### ■ 반기문, 북핵문제 해결 위해 대화는 필수적이며 효과적(연합뉴스)

-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과 대화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함.
- 반 총장은 2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비롯한 그동안의 핵실

힘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됐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언급함.

- 반 총장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도 효과적”이라며 “북한은 지난해 핵합의 이후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개선한 이란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함.

#### ■ 인도네시아, 남북 관계 개선 위해 중재하겠다(연합뉴스)

- 인도네시아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악화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안타라통신이 28일 보도함.
- 아르마나타 나시르 인도네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인도네시아는 남북한의 화해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이어 인도네시아가 역내 긴장을 촉발할 수 있는 도발 행위를 삼갈 것을 북한 측에 요구했다고 소개함.

#### ■ 이집트, 유엔 제재대상 연루 북한인 추방 움직임(연합뉴스)

- 이집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받는 단체에 관여한 북한인 3명을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집트 정부가 자국 주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요원 3명을 이달 중순 추방했다고 28일 보도함.
- 이 보도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이들이) 아직은 추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런 쪽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함.

2016. 4. 29.

#### ■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논의(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식 협의’(informal consultations)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함.
- 이는 북한이 28일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소집된 긴급회의였음.
- 안보리는 1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중국이 본국과의 협의 시간을 요구함에 따라 언론성명은 이날 밤이나 29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 뉴질랜드, 북한 여행 주의보 발령(연합뉴스)

- 북한의 거둬들인 핵·미사일 도발로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시행되는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가 북한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함.
- 뉴질랜드 정부는 28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에서는 뉴질랜드에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활동으로 외국인이 체포, 구금, 추방될 수 있다”며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권고함.
- 뉴질랜드 정부는 또 북한에 갈 때는 종교적·정치적 성격을 지닌 물품은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의보는 “북한을 방문하는 국민은 포괄적 의료보험과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해 충분한 현금을 소지할 것을 권고함.

#### ■ 노벨상 수상자 3명 방북한듯...김일성대서 강연(연합뉴스)

- 노벨상 수상자 3명이 김일성종합대학 등에서 강연하기 위해 29일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보임.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화와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교류’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리히텐슈타인 공국 왕자인 알프레드 자문이사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평화기금 대표단이 29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짧게 보도함.
- VOA에 따르면 이들은 도착 당일 평양에서 열리는 환영만찬에 참석한 뒤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후 나흘간 김일성대, 김책공업대, 평양과기대 등에서 경제 정책과 개발, 의학 혁명 등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임.

2016. 4. 30.

#### ■ 안보리, 전회원국에 한달내 대북제재 구체적 조치 보고 요구(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북제재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집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논의하고 있음.
- 29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입수한 성명 초안에 따르면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내달 31일까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 구체적인 조치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 초안은 또한 안보리가 산하 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심화하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4. 24.

### ■ 北 “잠수함 미사일 시험발사 대성공” 주장…김정은 참관(연합뉴스)

- 북한은 2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함.
- 김 제1위원장은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켜본 뒤 “이번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하여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능력이 비상이 강화되게 되었다”면서 “이제는 남조선 괴뢰들과 미제(미국)의 뒤통수에 아무 때나 마음 먹은대로 멸적의 비수를 쫓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이어 “당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주체조선의 강력한 핵공격의 또 다른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국방과학 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꾼들, 과학자·기술자들을 치하하기도 함.
-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리병철 제1부부장을 비롯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책임일꾼들과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일꾼들이 현지에서 김 제1위원장을 맞이함.

### ■ 北, 최전방에 방사포 300여문 추가배치…서울·수도권 사정권(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 신형 방사포 300여문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수도권에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음.
-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보다 북한 최전방 지역에 조밀하게 깔린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함.
- 북수의 정부 소식통은 24일 “북한군이 지난 2014년부터 최전방 연대급 부대에 신형 122mm 방사포를 배치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300여문을 깐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신형 122mm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40여km에 이른다”고 밝힘.
- 북한이 새로 배치한 신형 122mm 방사포는 수도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옴. 군 관계자는 “신형 122mm 방사포의 실제 사거리는 20~30km로 추정된다”면서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보다는 다른 전술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2016. 4. 25.

### ■ 北 SLBM 발사시험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연합뉴스)

- “북한의 잠수함 발사 시도는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 밝힌 후 CNN은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함. 또 다른 미국 관리는 “이 시험이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CNN의 질문에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답함.
-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도 “이번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과거에 비해 분명히 진보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이번에 신포급(2천t급) 잠수함에서 SLBM을 사출한 것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JL-1 SLBM이나, 인도의 K-4와 유사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SLBM 시험 발사에 관한 보도에서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발동기’가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음.

2016. 4. 26.

■ **38노스, 北SLBM 발사 나름대로 성공적…2020년께 실질적 위협(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3일 동해에서 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KN-11·북한명 ‘북극성-1’) 발사 실험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으며 2020년에 이르면 실질적 위협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미국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SLBM이 작전 환경에서 신뢰성 있게 운용되는 방향으로 기술적 진전을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힘.
- 실링 연구원은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고체연료로 추진되는 북한의 SLBM은 더욱 신뢰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번 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발사됐든,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됐든지 간에 북한은 SLBM을 30km를 비행시킬 수 있는 실험능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함.

■ **영국 전문가 “北, SLBM로 2차 핵 보복공격 능력 추구”(연합뉴스)**

-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능력을 통해 2차 핵 보복 공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ies)을 갖추려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됨.
- 영국 군사정보업체 IHS 제인스의 칼 듀이 생화학·핵·방사능 무기전문 선임분석관은 “북한이 SLBM 능력을 완비할 경우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고려하는 국가는 이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주변 국가는 북한의 SLBM 발사 능력으로 더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듀이 선임분석관은 “지난 23일 북한 당국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SLBM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이 실제로 고체연료를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지적함.

### ■ 공중 폭발한 北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또 발사대기 태세(연합뉴스)

- 북한이 최초 발사를 시도했다가 공중 폭발한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중 나머지 1발이 또 발사대기 상태에 돌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짐.
- 정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지난 15일 발사했다가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을 또 발사하려는 징후가 나타났다'면서 '당시 2발 중 1발을 쏘아 실패했고 남은 1발이 현재 발사대기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다른 관계자는 "군 당국은 현재 징후로 볼 때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조만간 다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감시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함.

### ■ 北 1월 핵실험 후 현장지표 7cm 함몰·히로시마 원폭보다 약해(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월 6일 단행한 제4차 핵실험으로 실험 장소의 지표가 최대 7cm 함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6일 보도함.
- 핵실험전면금지조약기구(CTBTO) 준비위원회와 독일 지구과학천연자원연구소 등이 지구관측위성 '센티널 1A'의 레이더를 통해 관측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에 의하면, 함몰이 발견된 곳은 핵실험장 터널 입구로부터 북서쪽으로 3km 떨어진 산(山) 속임.
- 보고서는 이번 관측치를 근거로 북한이 핵실험 당시 터트린 핵무기의 위력을 환산하면 10kt(킬로톤) 정도로, 히로시마 원폭(15kt)보다 약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북한이 당시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수소폭탄 실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함.

### ■ 美ISIS "풍계리엔 경미한 움직임만"...5차핵실험 준비 끝난듯(연합뉴스)

- 북한이 곧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경미한 움직임만이 관찰되고 있음.
- 지난달 중순 이후 차량과 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던 이곳에서 외부적 활동이 줄어들어 북한이 사실상 핵실험 준비를 끝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소장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지난 22일부터 25일 까지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이 2~4차 핵실험을 연속 실시했던 북쪽 갭도 앞에 트럭과 차량 또는 인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26일(현지시간) 밝힘.
- 이처럼 핵실험장의 외부적 움직임이 줄어들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ISIS는 밝힘.

### ■ 北, SLBM 발사는 정당한 자위권...핵에는 핵으로 맞설 것(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23일 감행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에 "핵에는 핵으로 맞설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략잠수함

- 탄도탄 수증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주체 조선의 강력한 핵 공격의 또 다른 수단을 마련한 역사적 사변”이라며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북한의 SLBM 발사 이후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비난하며, 오히려 한반도 평화가 “우리(북한)를 겨냥한 핵전쟁 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공갈 책동에 계속 매여 달릴수록 우리 핵 공격 능력의 끊임없는 비약적 발전만을 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핵에는 핵으로 맞설 것이라는 조선 노동당의 전략적 기도에 따라 핵 무력 강화의 발걸음을 더욱 다그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2016. 4. 29.

##### ■ 북한 SLBM발사때 옆에 만경봉호 있었다…데이터수집한듯(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때 북한 여객선 만경봉호가 주변에 있었다고 NHK방송이 29일 보도함.
- 북한이 지난 23일 함경남도 신포 동북방 동해에서 SLBM을 발사했을 때 만경봉호가 잠수함과 연동하는 형태로 같은 해역을 항행한 것이 위성사진 등으로 확인됐다고 NHK는 전함.
- 한일 정보당국은 북한이 군사적 움직임을 간과당하지 않기 위해 만경봉호를 이용해 SLBM 발사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 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중임.

##### ■ 北, 무수단미사일 2발 발사…추락·공중폭발로 모두 실패(연합뉴스)

- 북한이 28일 오전과 오후에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각각 1발씩 쏘으나 모두 실패함.
- 지난 15일 처음으로 시도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지 13일 만에 재도전했으나 연거푸 실패함으로써 중거리 미사일 기술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옴.
-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 7시 26분께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무수단 미사일 1발을 추가로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2016. 4. 30.

##### ■ 미 ISIS, 북 영변 핵단지서 재처리준비 추정활동 이어져(연합뉴스)

-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준비 작업으로 추정되

는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미국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29일(현지시간) 밝힘.

- ISIS는 지난 23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방사화학실험실로 부르는 재처리시설 가장자리에서 핵폐기물 저장탱크로 보이는 3개의 구조물을 땅에 묻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함.
- 원자로 건물 앞과 약간 떨어진 곳에 대형 개방식 적재함이 달린 트럭이 서 있었으며, 따라서 이 원자로에 대해서도 목적을 확실히 알 수 없는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여겨진다고 ISIS는 풀이했다.

#### ■ 北 5차 핵실험 도발할까...감행한다면 다음 주 초 유력(연합뉴스)

- 최근 들어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정황이 잇달아 감지되고 7차 노동당 대회가 다가오면서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우리 군 당국은 얼마 전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과 인력의 움직임이 포착된 데 이어 북한이 최근 3차례에 걸친 무수단(BM-25)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자 핵실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당 대회 취재를 위한 해외 언론의 입국을 받아들일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는 않다”고 말함.

## II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4.26		오바마 미군 무기로 북한 파괴 가능하지만 우방 한국 고려해야(연합뉴스)
	4.29	한미 '독수리' 연습 오늘 종료...한반도 긴장은 진행형(연합뉴스)	
			美국무 장관 "한 일은 최강 동맹...미군 주둔에 상당한 지원"(연합뉴스)
			한미 재계회의...통상마찰 해소 경제동맹 강화 논의(연합뉴스)
4.30		美공화의원 주한미군 철수하면 미국의 지렛대 잃는다(연합뉴스)	
	4.30		백악관 중 리 반대해도 사드배치 협의 계속한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4.27	윤병세 "한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핵 미사일 위협"(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4.26	한중일 정상회담 올해 후반 일본서 개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4.27	윤병세 중 리와 北도발 억제 노력·CICA 참석차 출국(연합뉴스)	
	4.28		러 외무, 한반도 정세 위험한 전개 막고 6자 회담 재개해야(연합뉴스)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4.25		中, 연내 남중국해 스키보러 임초 매립 개사...전조기지화 착수(연합뉴스)
			中, '중국역할론' 꺼낸 오바마에 "미국은 온힘 다했나" 발끈(연합뉴스)
	4.26	미국방부 "중국 해양영유권 주장 과도" 연례보고서서 비판(연합뉴스)	中, 美 남중국해 근접비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하겠다"(연합뉴스)
			美中 전문가 '사드 이견...'반대 이해못해' vs "합리적 우려"(연합뉴스)
	4.29	백악관, 중국 NGO 활동규제 법안에 깊이 우려(연합뉴스)	
		美中, 또 남중국해 설전...서로 "이중잣대 적용말라"(연합뉴스)	中, 남중국해서 대규모 상륙훈련...美 합동 훈련에 맞붙(연합뉴스)
4.30		중국, 미-아세안과 내달 남중국해서 기묘한 연합군사훈련(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4.24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공들이는 일본...원폭 사죄 요구 안한다(연합뉴스)
	4.28	웬디 셔먼 "韓日 위안부 합의했으니, 오바마 히로시마에 가라"(연합뉴스)	
	4.29		이베,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하면 日핵폐기 호소 이해할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4.28		러시아, 미국 사드 한국 배치 동북아 지역 안정에 타격될 것(연합뉴스)
			러 전투기 북태평양에서도 미군 정찰기 근접비행(연합뉴스)
	4.29	미국-러시아, 30일 시리아 영토서 휴전 합의(연합뉴스)	러, 미 특수부대원 시리아 과격은 시리아 주권 침해(연합뉴스)

	4.30	나토, 러시아 인접 동유럽에 병력 4천명 배치(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일본</b>
중일 관계	4.24	中, 日, 韓 3국 정상 동중국해 민감 구역 항행... 경계태세(연합뉴스)	
	4.27	中, 日, 韓 3국 정상 방중계획 확인...시진핑 면담은 '미지수'(연합뉴스)	
	4.28		아베 외교책사내달 방중 타진...中 확답 안 해(연합뉴스)
	4.30	중일 외교장관 北 도발에 심각한 우려...핵야망 저지 공조(연합뉴스)	
		中, 日, 韓 3국 정상 방중 시작부터 남중국해 등으로 '불협화음'(연합뉴스)	
			日외무상 4년반만의 방중...리커창 면담이 유일한 성과(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러시아</b>
중러 관계	4.28	중러 주도 CICA, 북핵·미사일 첫 규탄...안보리 노골적 무시(연합뉴스)	
	4.29	중러 "北 무책임한 추기도발 삼가라...결의안 어김없이 집행"(연합뉴스)	
	4.30	중국 자금줄 막힌 러시아 LNG 프로젝트에 구원투수로 등장(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일본</b>	<b>러시아</b>
일러 관계	4.30	아베 내일부터 유럽, 러시아 순방...대북 압박공조 촉구(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6. 4. 26.

##### ■ 오바마, 미군 무기로 북한 파괴 가능하지만 우방 한국 고려해야(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군 무기로 북한을 쳐부술 수 있지만, 북한과 맞닿은 한국 등 우방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26일(현지시간) 미국 CBS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 방문 중에 CBS 토크쇼 ‘오늘 아침’의 공동 진행자 찰리 로즈와 인터뷰를 하고 “우리 무기들을 활용해 북한을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북한 공격에 따른 “인도주의적 대가를 제외하더라도 북한이 우리의 중요한 우방인 한국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함.
-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벌이는 신경전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중국이 선을 넘는다면 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겠느냐는 물음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건설적이고 허심탄회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믿음을 대통령 취임 이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고 답함.

2016. 4. 29.

##### ■ 한미 ‘독수리 연습’ 오늘 종료…한반도 긴장은 진행형(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인 독수리(FE) 연습이 29일 끝남. 군 관계자는 이날 “독수리 연습의 공식 일정은 내일 끝나지만 야외 훈련 프로그램은 오늘 모두 종료된다”고 밝힘. 독수리 연습에 참가한 한미 양국 군은 30일에는 부대 철수를 포함한 정리 작업을 하게 됨.
-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잇달아 감행한 시점에서 시작된 이번 독수리 연습은 병력과 장비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됨.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아울러 강력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도 띠게 된 것임.
- 그러나 올해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가 고강도 대북 제재에 나선 국면이기 때문에 독수리 연습 종료에도 한반도의 높은 긴장 수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미국무 장관 “한·일은 최강 동맹…미군 주둔에 상당한 지원”(연합뉴스)**

-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장관은 28일(이하 현지시간)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는 최강”이라며 “두 나라는 미군의 현지 주둔을 상당히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함.
- 블링큰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은 우리가 역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힘.
- 국무부 2인자인 블링큰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27일 공화당의 선두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져야 한다고 압박성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됨.

■ **한미 재계회의…통상마찰 해소·경제동맹 강화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의 재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후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통상 마찰을 막기 위해 경제동맹 강화를 논의함.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바이오산업 등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신산업을 제시하는 등 차세대 협력 방안도 제기함.
- 미국 측 참석자들은 이날 이승철 부회장의 협력 제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바이오 제약 분야 협력 등은 올해 9월로 예정된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함.

■ **美공화의원, 주한미군 철수하면 미국의 지렛대 잃는다(연합뉴스)**

-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피트 킹(공화·뉴욕) 의원은 28일(이하 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이 적정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우리는 (미국의 안보이익을 지켜줄) 지렛대를 잃는다”고 비판함.
- 킹 의원은 이날 미국 CNN 방송에 나와 “트럼프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미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함.

2016. 4. 30.

■ **백악관, 중·러 반대해도 사드배치 협의 계속한다(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한국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자원들을 투입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어니스트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언제 끝날지에는 “현재로서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며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주권국가이자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결정할 사항이며 한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함.

## 나. 한·중 관계

2016. 4. 27.

### ■ 윤병세 “한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핵·미사일 위협”(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양국이 당면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북핵 문제에서의 양국 공조 필요성을 강조함.
- 윤 장관은 이날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왕 부장과의 양자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밝힘.
- 윤 장관은 한중 정상이 “지난 3년간 양국이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관계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점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함.

## 다. 한·일 관계

2016. 4. 26.

### ■ 한중일 정상회담 올해 후반 일본서 개최(연합뉴스)

- 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올해 후반기에 일본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의장국인 일본 외무장관이 밝힘.
- 요미우리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5일 도쿄에서 열린 요미우리 국제경제간담회 강연에서 “올해 후반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본은 일중한 외무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말했다고 26일 보도함.

## 라. 한·러 관계

2016. 4. 27.

### ■ 윤병세, 중·러와 北도발 억제 노력…CICA 참석차 출국(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함. 중국, 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CICA 외교장관 회의에 우리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2006년 CICA 가입 이후 처음임.

- 윤 장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는 시점에서 과거에 북한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엄중성을 재확인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CICA 회의 첫 참석의 의미를 설명함.
- 윤 장관은 이어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추가 도발을 하면 더 강한 추가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2016. 4. 28.

■ **러 외무, 한반도 정세 위험한 전개 막고 6자회담 재개해야(연합뉴스)**

-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상황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6자회담 재개를 거듭 촉구함.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교류·신평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며 “축적된 경험이 한반도 정세의 위험한 전개를 중단시키고 6자회담을 재개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모든 국가의 믿을 수 있는 안보를 보장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함.
-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역시 CICA 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도 열어 북핵 및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대응과 양국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함.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6. 4. 25.

■ **中, 연내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 매립 개시…전초기지화 착수(연합뉴스)**

-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의 매립 공사를 올해 안에 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됨.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미국과 필리핀의 최근 군사공조 강화에 대응해 연내 필리핀 해안에서 230km 떨어진 스카보러에 전초기지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중국군 해군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함.
- 이 소식통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제공권 확대를 위해 스카보러 암초에 활주로

를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소식통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영구적 군대 주둔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며 새 스카보리 전초기지를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제공권 확보가 더 완벽해질 것이라고 말함.

- 진용민(金永明) 상하이(上海)사회과학원 중국해양전략연구센터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 필리핀 간 협력 강화 및 임박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 등으로 극심한 압력을 받았다며 스카보리 암초의 활주로가 중국 공군의 남중국해 작전 범위를 최소 1천 km 확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 ■ 中, ‘중국역할론’ 꺼낸 오바마에 “미국은 온힘 다했나” 발끈(연합뉴스)

-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압력 강화를 촉구하며 재차 ‘중국역할론’을 꺼내 든 데 대해 “우리는 미국이 제재 이외에 (북핵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고 논평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관련 질문이 나오자 중국은 각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충실하게 집행하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함.
- 화 대변인은 다만 “안보리 결의 집행은 단지 쌍방(미중)이 소통을 유지하고 있는 한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기타 다른 국가들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핵과 관련한 미중 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함.

2016. 4. 26.

#### ■ 美 국방부 “중국 해양영유권 주장 과도” 연례보고서서 비판(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남중국해와 관련해 과도한 영유권 주장을 펴고 있다고 공식 비판함.
- 미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발간한 2015년도 ‘항행의 자유’(FON)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지나치게 해양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지적함.
- 미 국방부는 특히 중국이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 군함의 무해통항에 대해 사전승인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비판함. 이는 올해 보고서에 새롭게 추가된 대목임.

#### ■ 中, 美 남중국해 근접비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하겠다”(연합뉴스)

-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대한 미군 전투기의 근접비행을 겨냥해 주권 수호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 중국 국방부 신문국(대변인실)은 26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미국 측은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핑계로 남중국해의 군사화(군사기지화)를 추진함으로써

- 써 연안국의 주권·안보를 위협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함.
- 국방부 신문국은 그러면서 중국은 그와 관련해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힘.
  - 이어 “황옌다오(黃巖島·스카버러섬)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중국 군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국가 주권과 안전(안보)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 ■ 美中 전문가 ‘사드 이견’...“반대 이해못해” vs “합리적 우려”(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요인인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문제를 놓고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가 26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정치 포럼에서 시각차를 드러냄.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관계 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서임.
- 연사로 참석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반대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함. “사드의 레이더는 250km 밖을 내다볼 수 있다. 중국의 미사일이 한반도를 향해 올 때만 사드가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때만 사드가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
- 반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주펑(朱鋒) 난징(南京)대 교수는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우려는 합리적”이라며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배가될 것이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은 약화할 것”이라고 중국의 우려를 직설적으로 밝힘.

2016. 4. 29.

#### ■ 백악관, 중국 NGO 활동규제 법안에 깊이 우려(연합뉴스)

- 백악관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NGO(비정부기구)를 엄격히 통제하는 법률안이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데 대해 “깊이 우려된다”고 밝힘.
-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백악관은 인권활동가와 언론인, 기업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기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NGO의 권리보호도 포함된다”고 강조함.
- 백악관은 이 법률안에 대해 “중국 시민사회의 공간을 더 좁히고 미국과 중국의 개인과 조직 간 접촉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함.

#### ■ 美·中, 또 남중국해 설전...서로 “이중잣대 적용말라”(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서로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라”며 또다시 설전을 벌임.

- 미 고위 당국자가 필리핀의 제소로 진행 중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국제중재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로 미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함.
- 필리핀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국을 상대로 낸 남중국해 분쟁 조정신청은 5월 말 또는 6월 초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등은 필리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 이에 맞서 중국 역시 우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음.

■ **中, 남중국해서 대규모 상륙훈련…美 합동훈련에 맞붙(연합뉴스)**

- 중국 인민해방군이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전개하는 장면이 관영방송을 통해 공개됨.
- 중국중앙(CC)TV는 28일 중국군이 다수의 대형 군함과 공기부양정, 무장헬기 등을 동원해 남중국해 모 해역에서 상륙훈련을 하는 장면을 2분30초가량 방영함.
- 남중국해에서 전개되는 중국군의 잇따른 군사훈련은 미국이 필리핀 등 동맹국들과 연합해 이 지역에서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는 데 대한 '맞붙훈련'이라는 관측이 나옴.

2016. 4. 30.

■ **중국, 미·아세안과 내달 남중국해서 기묘한 연합군사훈련(연합뉴스)**

- 미국을 비롯해 필리핀, 베트남 등이 참여하는 남중국해 연합군사훈련에 중국도 참가한다고 참고소식망(參考消息網)이 미국 언론을 인용해 30일 보도함.
- 내달 2~12일 싱가포르, 브루나이, 남중국해 근해에서 전개되는 이번 훈련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소속 10개국과 미국, 인도, 중국 등 6개 국가가 참여함.
-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를 방어하는 남해함대 소속의 유도탄 구축함 란저우함과 참모인력, 특수병과 병력 등을 파견할 예정임.

**나. 미·일 관계**

2016. 4. 24.

■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공들이는 일본…원폭 사죄 요구 안한다(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피폭지를 방문할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원폭 투하에 관해 미국에 사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짐.
- 24일 마이니치(毎日)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이 원폭 피해의 상징인 히로시마(廣島) 평화기념공원을 이달 11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원폭 투하에 관해 사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사전

- 에 미국에 전했다고 밝힘.
- 기시다 외무상은 당시 미국 측에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인류의 비극을 두 번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도록 히로시마를 방문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23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강연하며 밝힘.
  - 일본 정부가 이런 뜻을 미리 전달한 것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가는 것을 원폭 투하에 대한 사죄로 해석해 미국 내에서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생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2016. 4. 28.

##### ■ 웬디 셔먼 “韓日 위안부 합의했으니, 오바마 히로시마에 가라”(연합뉴스)

-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2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원자폭탄 투하지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할 것을 촉구함.
- 셔먼 전 차관은 특히 과거사 갈등을 빚던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행(行)을 결정하기 쉬워졌다고 주장함.
-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교 고문인 셔먼 전 차관은 이날 미국 CNN 방송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가야한다”며 “이는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 사과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과거를 인정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2016. 4. 29.

##### ■ 아베,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하면 日핵폐기 호소 이해할 것(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廣島) 방문에 기대감을 표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함.
- 아베 총리는 전날 니혼TV 프로그램에서 오바마의 히로시마행에 대해 “원폭 피해의 실상을 접하면 왜 일본이 ‘핵무기 없는 세계’와 핵 폐기를 호소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내달 26~27일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계기에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다. 미·러 관계

2016. 4. 28.

### ■ 러시아, 미국 사드 한국 배치 동북아 지역 안정에 타격될 것(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움직임에 대해 동북아 지역 안정에 대한 타격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함.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내 우크라이나 래디슨 호텔에서 열린 제5차 국제안보회의 개막식에서 연설하며 “글로벌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행동이 심각한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이란 핵프로그램 우려가 제거됐음에도 이같은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동북아 지역, 특히 한반도에 미국 MD(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려는 계획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새로운 타격이 되고 있다”고 주장함.
- 라브로프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미국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해온 러시아의 입장을 반복한 것임.

2016. 4. 29.

### ■ 러 전투기, 북태평양에서도 미군 정찰기 근접비행(연합뉴스)

- 북유럽 발트해에서 미군 구축함과 정찰기에 위험할 정도의 근접비행을 했던 러시아 공군이 북태평양에서도 같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남.
-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보수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은 미국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공군의 ‘미그-31’ 전투기가 지난 21일 극동러시아 캄차카 반도 부근 공해 상공에서 미군의 ‘P-8’ 정찰기에 대해 요격(intercept) 비행을 했다고 전함.
- 이 매체는 다른 미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에 약 16m 거리까지 접근했다고 전함.

### ■ 미국-러시아, 30일 시리아 영토서 휴전 합의(연합뉴스)

-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온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등지에서 오는 30일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 등이 29일 보도함.
- 러시아의 한 소식통은 “러시아군과 미군이 30일 자정부로 시리아 영토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타스 통신에 말함.
- 러시아 RIA통신도 “다마스쿠스와 그 주변은 30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라타키아는 72시간 동안 ‘조용한 날’로 정하기로 한 합의가 러시아와 미국의 보장 아래

이뤄졌다”고 전함.

■ **러, 미 특수부대원 시리아 파견은 시리아 주권 침해(연합뉴스)**

- 시리아 정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미 특수부대원들의 시리아 파견은 시리아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러시아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섬.
-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군 특수부대원 150명이 시리아 북동부 도시 루메일란에 배치됐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전함.
- 라브코프 차관은 “시리아 정부도 (미군 배치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밝혔으며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함.

2016. 4. 30.

■ **나토, 러시아 인접 동유럽에 병력 4천명 배치(연합뉴스)**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의 군사활동 강화에 맞서 폴란드와 발트 3국에 4개 대대 병력 약 4천 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서방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함.
- 브뤼셀을 방문 중인 로버트 위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이 같은 병력 전체 규모를 확인해 주면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 주변에서 러시아의 호전적 군사활동 때문에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라. 중·일 관계**

2016. 4. 24.

■ **中군함·해경선 동중국해 민감 수역 항행…日, 경계태세(연합뉴스)**

- 중국 군함과 해경 선박이 중일간 섬 영유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잇달아 ‘시위성’ 항행을 함. 이에 일본은 경계 태세를 가동함.
- 일본 언론에 의하면,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3척은 일본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尖閣·중국어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12해리(22km) 수역 안으로 진입함. 이들 선박은 약 1시간 30분 가량 센카쿠 12해리 수역을 항행한 뒤 정오께 센카쿠 12해리 수역 밖으로 나갔음.
-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정보연락실을 정보대책실로 전환, 정보 수집을 하는 동시에 경계에 나섰음.

2016. 4. 27.

■ **中, 일본 외무상 방중계획 확인...시진핑 면담은 '미지수'(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공식 방중할 예정임.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시다 외무상의 방중 계획을 발표하고, 양국은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중일관계와 국제적·지역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화 대변인은 현재 중일관계와 관련, “개선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적지않은 도전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일본은 양국이 체결한 4개의 정치적 문건과 4개항 합의 정신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기시다 외무상이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나 리커창(李克強) 총리 등 중국 최고지도자들과 만날게 될지도 현재로선 불확실함.

2016. 4. 28.

■ **아베 외교책사 내달 방중 타진...中 확답 안해(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보국장을 내달 중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중국 측에 타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함.
- 일본 정부는 야치 국장의 방중을 성사시킴으로써 9월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아베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라고 교도는 전함.
- 그러나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을 보류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함.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섬을 군사기지화하는 데 대해 일본이 각종 국제무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양국 관계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양상임.

2016. 4. 30.

■ **중일 외교장관, 北 도발에 심각한 우려...핵야망 저지 공조(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30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반복된 도발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힘.
- 교도통신은 이날 오후 기시다 외무상을 인용, 양측이 4시간 이상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북한,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함.

- 기시다 외무상은 또 “도쿄, 베이징은 앞으로 평양의 핵 야망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함.

#### ■ 中日, 日외무상 방중 시작부터 남중국해 등으로 '불협화음'(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방중 첫날부터 동중국해·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연출함. 초반 불협화음의 발단은 일본의 우익성향 산케이신문 보도에서 비롯됨.
- 30일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산케이신문은 지난 28일 “기시다 외무상은 방중 기간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확대 행보에 대한 항의를 표시할 것”이라고 보도함. 또 동중국해·남중국해 등 많은 문제에서 양국의 견해차가 너무나 커 기시다 외무상이 이번 방중에서 어떤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일본 외무성 소식통'의 발언도 전함.
- 중국 외교부는 이 보도와 관련, 하루가 지난 29일 밤 홈페이지에 약식성명 게재하고 “중국이 동해(동중국해)와 남해(남중국해)에서 전개하는 활동은 완전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우리는 일본에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힘.

#### ■ 日외무상 4년반만의 방중...리커창 면담이 유일한 성과(연합뉴스)

-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30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고위급 당국자들과 연쇄 접촉을 하고 얼어붙은 중일 관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도출하지 못함.
- 중국 외교부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중일 외교장관 회담 내용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중일 관계가 반복적으로 곤경에 부딪히는 문제의 근원에는 일본의 역사와 대중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관계개선 조짐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상호신뢰가 결핍돼 있다”는 것임. 일본에 관계개선을 위한 성의, 언행일치, 실제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하기도 함.

## 마. 중·러 관계

2016. 4. 28.

#### ■ 중러 주도 CICA, 북핵·미사일 첫 규탄...안보리 노골적 무시(연합뉴스)

- 중국, 러시아 등이 주축이 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북한의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핵 폐기를 촉구한 공식 문서가 처음으로 채택됨.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중국 베이징 釣魚臺에서 열린 제5차 CICA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한 ‘CICA 외교장관회의 선언문(아시아

- 의 평화, 안보, 안정, 지속가능 발전 증진)에 북핵 관련 조항이 반영된 것임.
- CICA는 선언문에서 북한의 1월6일 4차 핵실험과 2월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난 15일과 25일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을 거론하며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면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힘.
  - 선언문은 또 “우리는 9·19 공동성명 및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대화 필요성을 강조함.

#### 2016. 4. 29.

##### ■ 중·러 “北, 무책임한 추가도발 삼가라…결의안 어김없이 집행”(연합뉴스)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 행보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29일 북한을 향해 ‘무책임한 추가도발을 삼가라’고 또 경고함.
-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는 조속히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현 긴장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6월 방중 문제, 중국 동북아 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계 협력발전 등도 논의하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두 장관은 전함.

#### 2016. 4. 30.

##### ■ 중국, 자금줄 막힌 러시아 LNG 프로젝트에 구원투수로 등장(연합뉴스)

-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제재로 돈줄이 막혔던 러시아의 ‘야말 LNG 프로젝트’ 중국 국영은행들의 자금 지원 약속으로 숨통이 트이게 됨.
-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야말 LNG 프로젝트가 중국 수출입은행 및 중국 개발은행과 각각 계약을 맺어 총 120억 달러(약 13조 6천86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됐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프로젝트는 모두 270억 달러의 공사비를 들여 북극해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임.

## 바. 일·러 관계

#### 2016. 4. 30.

##### ■ 아베 내일부터 유럽·러시아 순방…대북 압박공조 촉구(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5월 1일부터 유럽 주요국과 러시아를 순방하며

- 대북 압박을 위한 협력을 제언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함.
- 아베 총리는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독일, 영국 등을 잇달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거듭하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촉구할 방침임.
  - 아베는 각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안전보장상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임.

# III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4.25	일 정부, 뉴욕서 '북 인권 개선 토론회'(자유아시아방송)
	4.27	미 차관보, 북 인권 기해자 신상파와 주력(자유아시아방송)
		수젠 솔터, 하루 빨리 北감정은을 ICC에 기소해야(연합뉴스)
	4.28	독일 등 유럽서 잇단 북한인권 전시회(자유아시아방송)
		美 주민인권침해 북한 관료 10명 제재 방침(연합뉴스)
	4.29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관 공개모집..8명 지원 (미국의소리)
		수젠 솔터 "대북전단, 북한실상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연합뉴스)
4.30	북한 간첩 혐의 한국계 미국인에 10년 노동교화형(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4.25	홍용표 "北 인권개선, 행복한 통일 위해 매우 중요"(연합뉴스)
		북한자유주간 개막..핵·미사일 위협에 '인권' 문제로 압박(연합뉴스)
	4.26	통일연구원 "北, 2014년부터 첫 탈북시도에도 노동교화형"(연합뉴스)
		탈북여군, 北에서 여군은 성폭행 등 인권유린 희생자(연합뉴스)
	4.28	탈북자단체, 29일 파주 입진각서 대북전단 보낸다(연합뉴스)
4.29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北인권법 시행령 입법예고(연합뉴스)	
	민주평통, '북한인권전략회의서 NGO와 협력 모색(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문포로		
대북지원	4.26	FAO, 작년 북한 곡물 생산량 가뭄으로 18% 감소(연합뉴스)
	4.27	유진벨재단 "北 보건성, 방북일정 연기 통보해 와"(연합뉴스)
	4.28	북한 올해 식량 부족량 4년 만에 최대(미국의소리)
		유니세프, 자금부족에 대북 지원사업 난관(연합뉴스)
	4.29	북한 주민 10명 중 9명 예방접종(미국의소리)

## ■ 주간 동향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4. 25.

#### ■ 일 정부, 뉴욕서 ‘북 인권 개선’ 토론회(자유아시아방송)

- 일본 정부의 납치문제담당본부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토론회(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Strategies towards Restoration of Humanity)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다음달 4일 개최될 예정이다.
- 유엔 일본대표부의 쓰쓰미 타로 참사관은 납치 문제 이외에도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 전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라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또 다른 참석자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파람-프리트 싱(Param-Preet Singh) 국제재판 상임고문은 이날 행사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최신 보고서 내용 특히 ‘책임자 처벌’에 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함. 싱 고문은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와 유엔 전문가단의 보고서 이행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함. 싱 고문은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중요한 역할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임. 따라서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한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이 절실하다는 지적임.

2016. 4. 27.

#### ■ 미 차관보, 북 인권 가해자 신상파악 주력(자유아시아방송)

- 말리노우스키 차관보는 26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이 쉽진 않지만 적극 노력하고 있고 일부 진전도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 향후 한반도에 변화가 있을 때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들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말리노우스키 차관보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 내 정보유입을 위해서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3백만 대에 달하는 손전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소개함.
- 또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정책과 관련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중국 측에 제기

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밝힘. 하지만 최근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에 망명을 요청했을 때 중국 정부의 제지 없이 한국에 도착한 사례 등이 있다면서 중국 당국의 정책 변화 움직임도 보인다고 덧붙임.

#### ■ 수재 솔티, 하루 빨리 北김정은을 ICC에 기소해야(연합뉴스)

- 북한 인권운동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수재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27일 북한 당국의 폭력정치와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의 종식을 위해 하루빨리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해야 한다고 밝힘.
-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 중인 솔티 대표는 이날 북한인권 단체 대표와 미국 변호사, 해외 탈북자 대표 등 10여 명과 서울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OHCHR)를 찾아 이 같이 말함.
- 솔티 대표는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극악무도한 김정은의 인권탄압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김정은이 제 마음대로 주민들을 탄압하지 못하게 막는 길은 하루빨리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 독일 등 유럽서 잇단 북한인권 전시회(자유아시아방송)

- 독일 베를린의 재독한인인권옹호협회 괴펠 연속 회장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장벽박물관이 2014년부터 전시해 온 북한의 고문 등 인권유린에 관한 그림 30여 점을 위한 상설전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힘.
- 이탈리아의 밀라노 인근 소도시 세티모 밀라네세(Settimo Milanese)의 공립도서관에서도 고문 등 북한인권 유린 참상을 묘사한 그림 20여 점이 전시될 예정임. 밀라노한인교회(Chiesa Evangelica Coreana di Milano)가 북한 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을 알리기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최하는 행사임.
- 또한 북유럽국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다음달 23일부터 개최되는 오슬로자유포럼(OFF)에는 북한 요덕수용소 출신 탈북자 정광일 노체인 대표가 초대돼 증언할 예정임.

2016. 4. 28.

#### ■ 美, 주민인권침해 북한 관료 10명 제재 방침(연합뉴스)

- 미국이 주민의 인권 침해에 관여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할 전망이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미 행정부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에 관여하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고위 관계자 등 10명 안팎을 '인권 가해자'로 간주하고 이르면 이달 중에 제재 대상에 넣을 것이라고 전함. 미 행정부가 이런 방침을 이달 초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신문은 덧붙임.

- 제재 대상자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 자산이 있다면 동결됨. 아사히 신문은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외국으로의 노동자 송출 관련자는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함.
- 아울러 미 정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면 북미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걸 고려해 그를 제재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아사히는 보도함.

## 2016. 4. 29.

### ■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관 공개모집...8명 지원 (미국의소리)

-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후임자 모집에 8 명이 지원함.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국제 인권전문가 8 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후보자들은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 등 전세계에서 지원했고, 성별로는 남성 7 명, 여성 1 명임.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6월13일부터 7월1일까지 열리는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후임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 수잔 솔티 “대북전단, 북한실상 알리는 효과적 방법”(연합뉴스)

-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대북전단 보내기 행사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신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함.
- 이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참혹한 인권범죄를 저지르는지, 그리고 진정한 적은 김정은 정권이라는 걸 깨달아 남한과 같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임.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제13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대북전단 보내기 행사를 준비했다”며 “인간의 모든 권리를 잃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의 존엄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대북풍선 보내기 행사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힘.

### ■ 북한 간첩 혐의 한국계 미국인에 10년 노동교화형(연합뉴스)

- 북한이 간첩 혐의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62) 씨에게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함.
- AFP통신은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 씨가 29일 북한에서 형을 선고받았다고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AP통신도 평

양발 기사에서 간첩 행위를 하고 국가 기밀을 훔친 혐의로 구금돼 있던 김 씨가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함.

-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 등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불모로 억류한 외국인을 언론에 공개해 압박을 시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곤 함.

2016. 4. 30.

#### ■ 북한자유주간 ‘서울선언’ 발표... 남북한 주민 간 자유통일 필수(미국의소리)

- 13회 북한자유주간 행사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한 미-한-일 전략회의’에서 세 나라 대표들은 북한체제 붕괴 이후 탈북자 역할을 강조하는 ‘서울선언’을 선포함.
-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요구를 담은 ‘워싱턴선언’이 발표된 지 1년 만임.
- 미-한-일 대표들은 한국 정부와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된,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지원하는 자유통일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통일 과정에서의 탈북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 특이사항 없음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4. 25.

#### ■ 홍용표 “北 인권개선, 행복한 통일 위해 매우 중요”(연합뉴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힘.
- 홍 장관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인권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연 민관 합동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더욱이 북한은 핵개발을 비롯한 무력 증강과 주민들의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행사 준비에 집중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함.
- 홍 장관은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북한은 인권에 대한 간섭은 자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 인류적 가치인 인권은 국제사회가 함께 보호책임을 분담해

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라고 덧붙임.

■ **북한자유주간 개막…핵·미사일 위협에 ‘인권’ 문제로 압박(연합뉴스)**

-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매개로 대북 압박에 나섬.
- 한국과 미국, 일본의 대북 인권단체와 탈북자단체 등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3회 북한자유주간’ 개막식을 열고 오는 30일까지의 본격적인 행사 일정에 돌입함.
- 20여개 단체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및 붕괴 이후를 위한 탈북민의 역할과 책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새터민의 대모(大母)’로 불리는 수잔 솔티 미국 디펜스포럼재단 대표도 참여함.

2016. 4. 26.

■ **통일연구 “北, 2014년부터 첫 탈북시도에도 노동교화형”(연합뉴스)**

- 북한은 2014년을 전후해 탈북하다 적발된 주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조사됨.
-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은 26일 발간한 ‘2016 북한인권백서’에서 2014년 말부터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186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힘.
- 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까지는 탈북 시도 1회의 경우 노동단련대(단기 수용시설) 6개월, 2회 이상인 경우 노동교화형에 처해졌으나,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상관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됨. 교화 기간은 3~5년 정도로 나타남.
-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됨. 가족 중 다수가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면 노동단련형,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한 가족과 전화 통화한 사례가 확인되면 강제 추방함.
- 또 주민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녹화물과 국경지대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함.
-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금의 상당 부분을 노동당에 상납하는 등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도 받지 못함.
- 2012년 12월부터는 “탈북자를 다시 데려다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보위부원이 재입국 탈북자 선전을 위한 강연회를 열고 탈북자 가족에게 탈북자를 데려오는 것을 제안하기도 함.
- 북한인권백서는 또 북한이 2008년 사회보장법 제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난 탓에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이 밖에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등록문건 재정리 사업을 단행해 개인의 토대(성분)를 평가하는 범주를 일부 완화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북한 내부에

서 이에 따른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백서는 덧붙임.

■ **탈북여군, 北에서 여군은 성폭행 등 인권유린 희생자(연합뉴스)**

- 북한에서 여군들이 성폭행 등 인권유린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과 증언이 나옴.
- 탈북여성단체인 뉴코리아여성연합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북한에서 여군들이 처한 실태를 고발함.
- 탈북 여성인 최수향씨는 이날 집회에서 “북한 육군 간호사로 있을 당시 간호장이 거의 매일 같이 군 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그 간호장은 당 조직에 이를 고발했으나 간부는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간호장이 불명예 제대인 ‘생활제대’를 당했다”고 증언함.
- 최씨는 “배를 굶는 북한 주민과 달리 군은 상대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린다는 인식이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군 역시 감자·고구마 등으로 연명하는 등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며 “군인이라고 하지만 원산-함흥 고속도로 건설장이나 마식령스키장 건설장, 탄광 등에 동원돼 고된 노동도 해야 한다”고 말함.

2016. 4. 28.

■ **탈북자단체, 29일 파주 임진각서 대북전단 보낸다(연합뉴스)**

-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는 29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대북전단을 보낼 예정임.
-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28일 “미국의 북한자유연합 등 국내외 북한 인권단체가 2004년 4월 선포한 ‘북한자유주간’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내일 대북전단을 살포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날 행사에는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회장 등이 함께할 예정임.

2016. 4. 29.

■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北인권법 시행령 입법예고(연합뉴스)**

- 통일부는 29일 북한인권기록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함.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 기록한 북한 인권범죄 자료를 3개월마다 이관 받게 됨.
- 북한인권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6월 8일까지이며, 사전영향평가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시행됨.

■ **민주평통, '북한인권전략회의'서 NGO와 협력 모색(연합뉴스)**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9일 서울 장충동에 있는 민주평통 사무처 회의실에서 비정부기구(NGO)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전략회의'를 개최함.
-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해당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와 NGO 간 협력관계를 모색하고자 마련됨.
- 회의에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의연대, 세이브엔케이, 엔케이위치, NK지식인연대 등 15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NGO의 활동 주안점과 협력방안, 정부 추진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눔.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 5. 대북지원

2016. 4. 26.

■ **FAO, 작년 북한 곡물 생산량 가뭄으로 18% 감소(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가뭄 등으로 전년보다 1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함.
- FAO는 '농업, 식량 안보와 영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가뭄 피해로 2015년 북한의 쌀 생산량은 230만t으로 전년 생산량과 비교하면 21%로 낮아졌고, 옥수수는 15% 감소한 220만t으로 기록됐다"고 밝힘.
- 가뭄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은 남포시로 전년 생산량보다 50%의 곡물 손실을 보였고, 자강도가 34%, 황해북도가 30%로 그 뒤를 이음.

2016. 4. 27.

■ **유진벨재단 "北 보건성, 방북일정 연기 통보해 와"(연합뉴스)**

- 북한의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해 지난 19일 방북하려던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은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방북 일정이 늦어진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27일 밝힘.
- 재단은 "이번 방문이 정확히 왜 늦어졌는지 그리고 대표단 비자가 언제 발급될지 보건성으로부터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함.

- 북한 내 결핵 치료 지원사업을 해온 재단은 지난 3월 “북한 내 결핵 환자 치료와 실태 점검을 위해 4월19일~5월10일 재단 관계자가 방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결핵약과 치료 물품은 이미 북한에 전달된 상태임.

## 2016. 4. 28.

### ■ 북한 올해 식량 부족량 4년 만에 최대(미국의소리)

-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2012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28일 보도함.
- FAO는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69만4천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식량 부족분은 2012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힘.
- FAO는 이어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가뭄으로 감소하고 비료와 연료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식량 부족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북한 당국이 부족분 가운데 30만t을 수입으로 충당해도 39만4천t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봄.
- 한편 세계식량계획(WFP)은 오는 7월부터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함. WFP는 오는 2018년 말까지 1억2천600만 달러(한화 1천440억여원)를 들여 황해도와 강원도, 양강도, 함경도 주민 170만 명에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할 방침임.

## 2016. 4. 29.

### ■ 유니세프, 자금부족에 대북 지원사업 난관(연합뉴스)

-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이 자금 부족으로 대북지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유니세프는 RFA에 “지난해 책정된 (대북지원) 예산 2천 200만(250억5천만원가량) 달러 중 38% (580만 달러)만 모금돼 목표액의 절반도 못 미쳤다”며 “전년도에 남은 93만 달러를 합쳐도 자금 부족 상황을 해소할 수 없다”고 전함.
- 이어 “올해는 대북 지원사업 자금으로 1천800만 달러의 지원을 호소했다”며 “현재 부족한 자금으로 북한 주민 제공용 의약품이 70%만 구매됐고, 200만 명에게 실시하려던 위생교육 및 인식 제고 사업도 100만 명만 해당한다”고 설명함.

### ■ 북한 주민 10명 중 9명 예방접종(미국의소리)

- 북한주민 10명 가운데 9명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자료를 인용해 29일 보도함.
- 유니세프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일상적인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어 적게는 93.7%, 많게는 98.5%의 주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고 밝힘.

- 유니세프는 이어 “1년에 네 차례 북한 94개 시·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 백신을 포함해 23가지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며 “5세 미만 어린이 170만 명을 대상으로 설사와 폐렴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경구재수화염 50만 개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올해 1세 미만 북한 어린이 36만3천여 명에게 백신을 지원하고 임산부 37만여 명에게 과상풍 독소이드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역, B형 간염 등 8종의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함.